

# 핵 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진행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 핵공격임무수행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이 3월 18일과 19일에 진행되었다.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 전술훈련은 대규모적인 미국남조선연합군의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확대되고 미군핵전력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남조선지역에 투입되고있는 긴장한 정세속에서 단행되었다.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화국을 겨냥한 명백한 전쟁기도를 로골화하며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확대시키고 공격성이 짙은 군사행동을 람발하고있는 적에게 보다 강경한 실천대응의지와 경고를 보내기 위한데 이번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이들에 걸쳐 진행된 핵반격가상종합 전술훈련은 핵타격지휘체계관리연습과 핵반격태세으로 이행하는 실기훈련, 모의 핵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발사 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3월 18일 전술핵무력에 대한 지휘 및 관리통제운용체계의 민음성을 다각적으로 재검열하고 여러가지 가상적인 긴급정황속에서 핵공격명령달 및 접수절차의 정확성과 핵무기취급질서, 각이한 핵공격방안에 따르는 가동절차를 엄격한 안전성 견지에서 검열하면서 핵공격으로 신속히 넘어가기 위한 행동질서와 전투조법들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 여러차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

1일훈련을 통하여 핵반격준비 전 공정이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고 민음성높은 안전한 체계에서 운용되고있다는것이 확증되었다.

19일 오전 전술핵공격을 모의한 탄도미사일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사격훈련을 강순남 국방상과 전술핵

운용부대를 총지휘하는 련합부대장관과 동, 서부전선 각 미사일군부대장들, 구분대지휘관들이 참관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해당 간부들과 미사일총국의 지휘관들, 핵무기연구소의 해당 성원들이 참관하였다.

발사훈련에 앞서 최종핵공격명령인증절차와 발사승인체계 등 기술적 및 제도적장치의 가동정상성과 안전성을 검열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조법들을 반복적으로 숙련시켰다.

이어 적주요대상에 대한 핵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미사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되었다.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동해상 목표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탄두가 발사훈련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종합전술훈련을 통하여 중요화력속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구분대들의 실천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모든 구분대들이 커다란 자신심에 충만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 신속정확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과 같은 실천가상훈련들을 계속 조직진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인들을 불의적인 정황에 익숙시킴으로써 핵대응태세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

할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정확히 가동할수 있는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에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사명을 다할수 있게 되며 우리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평화로운 삶과 미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적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날로 가중되고있는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핵무력건설의 중요방향과 핵무력의 전쟁준비에서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고도의 립전태세에서 적들의 준동과 도발을 철통같이 억제하고 통제관리할것이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도래한다면 주저없이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것이다.

본사기자

##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반미, 대남대결의지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한 침략전쟁연습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 미국과 운석열역적대당에 대한 격렬의지가 온 나라에 무섭게 타번지는 속에 청년들의 참군열의로 강토가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무모하게도 《평양점령》을 꾀하며 이 땅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전국적으로 백수십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부대를 단원하였다.

은 나라의 일터와 학원들에서 거세차게 타번지는 청년들의 참군열의는 한목숨바쳐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굳건히 지키려는 뜨거운 애국의 열의가 안아온것이다. 공화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조선인민군 입대, 부대를 단원해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을 때에도 공화국에서는 모든 힘을 전쟁승리로 부른 위대한 수령님의 호시를 높이 받들고 두달도 못되는 기간에 무려 84만 9000여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용약 전선으로 단원하였다. 이러한 애국의 열풍은 오직 자기의 생명, 자기의 청춘, 자기의 행복보다 조국의 운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청년들만이 펼칠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공화국의 청년들속에서 날로 더욱 고조되는 참군열의,

를 단원해나선으로써 적대력들을 혼비백산케 하였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이 땅의 청년들처럼 조국을 위해 한몸바칠 맹세를 다지며 조국수호전에 필기한 모습은 찾아볼수 없다. 얼마전 평양시청년공원의극장에서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청년학생들은 가슴스러운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 멸적의 구조들을 웨치고 전신기요들을 우렁차게 합창하면서 수도의 거리들을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각지의 청년들도 복수결의의 모임을 가지고 용솟음치는 젊은 힘을 조국보위선전에 바쳐 침략의 무리, 만고역적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릴 정벌의지를 과시하였다. 원수격멸의 의지와 필승의 기상,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믿음직한 청년대군이 있기에 공화국은 강대하고 적대세력들은 이 땅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감히 다칠수 없다. 박성범



##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반영한

### 우 표 발 행

최근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반영한 새 우표(개별 우표 8종)들을 발행하였다. 우표들의 윗부분에는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이라는 글발이 부각되어있다.

열병대오의 선두에서 호기차게 나아가는 명예기병중대의 모습을 반영한 우표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의 한길따라 변함없는 한보폭으로 줄기차게 달음쳐온 우리 인민군대의 본연의 자세, 빨치산정신을 굳건히 이어가는 계승의 역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고 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회세의 천출명장의 손길아래 그 누구도 멈춰세울수 없는 천하무적의 첨단화된 공격형라격전단으로

자라난 전략미사일중대들과 조선로동당이 지펴준 훈련혁명의 불길속에 그 어떤 현대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된 열병대오들의 불패의 기상이 나래치는 우표들이 있다. 새로 발행된 우표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백승을 펼쳐가는 일당백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주체혁명위업의 끝없이 양양한 전진도를 힘있게 과시하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총분기해나선 전체 인민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줄것이다.

본사기자

